

지역 매아리

정읍시·수원시, 삶의 질 향상 청소년 우호교류 협약 체결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30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시장 염태영)와 청소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섭 정읍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22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수원시장과 정읍시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우호교류협약서 서명, 교환, 선물 증정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우호교류 협약체결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과 도시와 농촌 청소년간의 상호 이해증진을 통해 청소년 이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협약식 자리에서 양 지자체는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양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피부로 느낀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수원과 정읍의 우정을 끈끈하게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모든 협약이 지방정부 간 문화체육교류의 모범사례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보건소, 행복한 출산 위한 임신부 건강관리교실 운영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 이하 보건소)에서는 오는 2월부터 임신부와 수유부를 대상으로 산전·산후관리를 위한 다양한 임신부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산부 건강관리교실은 모유수유 클리닉, 임신부 건강교실, 임신부 공예교실로써 2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2층에서 실시된다.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되는 교육은 임신, 출산, 모유수유 등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모성과 태아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될 계획이다.

내달 12일에 첫 수업이 시작될 모유수유 클리닉은 매주 둘째주에 실시되며, 모유와 모유수유 이야기, 산전 셀프 유방관리법, 개인별 유방 진단과 맞춤형 관리법 지도, 산후 모유수유 개인별 문제 진단과 상담 등이 실시될 계획이다.

임산부 건강교실은 셋째주, 넷째주 화요일에 태교의 종류와 방법, 임신으로 인한 신체변화, 임신 중 식이관리와 운동, 분만과정의 이해, 분만 시 감통방법과 자세, 산후조리 원칙, 신생아 특성과 관리방법, 신생아 건강과 질병, 신생아 마사지, 이유식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도민체전의 모범답안이 되도록”

고창군, 문화의전당서 도민체전 D-100일 성공기원 행사 열어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열리는 도민체전을 백일 앞두고, 고창군이 성공기원 행사를 열고 분위기를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도민체전 조직위 212명과 체육인, 군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제56회 전북도민체전 D-100 성공기원’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조직위원 위촉장 수여, 결의문 낭독, 대회 홍보영상 상영, 대회 카운터기 제막, 성공기원 행사를 위한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제5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는 5월10~12일 사흘간 고창공설운동장과 종목별 경기장에서 38개 종목에 도내 14개 시·군선수단 1만 여명이

참가하는 전북도의 가장 큰 체육대회다. 군은 대회 열기 확산을 위해 군내 9개 읍·면, 33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고창군은 제38회(2001년)와 제47회(2010년) 도민체육대회를 열었고, 올해 제56회(2019년) 대회를 유치하면서 도내 8개 군 단위 중 3번의 대회를 치르는 유일한 곳이다.

현재 고창군은 완벽한 경기운영을 위해 도비 11억원을 투입해 공설운동장 외관 리모델링(관중석 설치, 성화대 보수, 샤워실 개보수, 주차장 정비 등)을 마무리하고, 종목별 경기장을 새 단장 했다.

또 연맹과 사전 협의를 통한 경기력 향상은 물론, 종목별 공인 작업

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이미지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고창을 표현한 개·폐회식 등 특색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민체육대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별 자원봉사자를 2월부터 모집한다.

이날 유기상 고창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선사시대부터 가장 찬란한 문명을 꽃피운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위상을 전 도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향후 도민체전의 모범답안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청정지역 유지 위한 AI·구제역 차단방역 총력

부안군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귀성객 등 많은 사람·차량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AI 유입차단과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추진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선제적이고 강화된 방역추진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안군은 보유하고 있는 소독기용 장비를 총동원하고 소독반을 편성하여 축합과 함께 축산농가·시설 및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제소독을 및 명절 전후인 내달 2일, 7일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군, 읍·면 비상근무를 유지하고 터미널 등 다중시설에 발판소독조를 설치하였으며, 축산농가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리플릿, 현수막,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축사내외부 청소·소독 철저, 의심축 발견 즉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준수 사항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안성에서 지난 28일

발생한 구제역이 부안군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선제적 방역 조치와 신속한 대처를 위해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신고 접수 시 지체없이 확실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농가와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설명절 기간에도 농가 소독지원과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평상시와 다름없이 방역체계를 철저히 가동할 방침”이라며 “명절 기간 중 관외지역을 드나들 때는 차량소독을 철저히 하고 축산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방지 홍보 캠페인 실시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상호)는 명절 전 장날을 이용해 지난 28일과 29일 양일간 제7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조합원 등이 다수 왕래하는 고창읍 재래시장 및 해리면 재래시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설명절을 대비하여 명절인사,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 운동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돈선거 척결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과 ▲지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최고 3억원 지급 등을 집중 안내하였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위법행위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가 명절 전 장날을 이용해 지난 28일, 29일 제7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564-258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설 명절맞이 교통종합대책 추진

정읍시, 다중이용 교통시설물 불편사항 사전점검 등 대책 마련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연휴기간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특별교통대책은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다중이용 교통시설물 현장점검·정비, 교통 혼잡지역 주·정차 특별계도가 주된 내용이다.

시는 신호등과 각종 교통표지판, 차선규제봉 등 교통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여 보수하고, 터미널과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과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여 각종 위생용품을 준비하는 등 귀성객을 맞이할 민반의 준비를 마쳤다.

귀성객 집중 방문기간인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지역주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하여 관내 31개소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또한 상시 교통 혼잡지역인 정읍역, 터미널, 생고을시장, (구)명동로터리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 특별 지도를



통해 호객행위, 장보기 차량 장기주차, 교통정체 예방 등 선진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교통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수송상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춰 긴급 상황에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권철현 교통과장은 “즐거움 명절 기간 중 신속한 대처와 준비로 시민과 귀성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새해 첫 명절의 즐거움이 될 한해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생활 속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고창군, ‘안전신문고’ 홍보 발 벗고 나서

#1.지난해 4월 어느날. 고창지역에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이 휘몰아쳤고,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대신면 한 주택은 지붕이 파손되고 전선주가 기울어져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 주민은 안전신문고 어플에 해당지역의 사진을 찍어 올렸고, 군청 담당자는 신고 후 채 30분도 안 돼 현장에 도착해 3시간 만에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

#2.고창군의 한 공영주차장. 초보운전자들은 주차 방지막이 없어 후진주차시 인도를 침범하기 일췌였다. 특히 전선주와 충돌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에 한 주민이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올렸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하고 방지막을 설치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

고창군이 ‘안전신문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안전신문고’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위험요소와 재난,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과 홈페이지 신고 서비스다. 주요 신고대상은 도로 안내표지판 파손부터 신호등 고장 등 교통위험, 불법현수막, 통행로 돌출물과 장애요소까지 사소한 것이라도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모두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고창군 관계자는 “안전신고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주변의 사소한 위험요소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자발적인 신고가 안전한 고창을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 750ml 1ea/12% |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 375ml 5ea/13% | GIFT SET 6세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 375ml 2ea/13% | TEL : 063-584-8980 www.gangsanwine.com